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기]

평범하게, 위대하게

최 보 미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I. 들어가며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2010년 1월 2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리로스쿨 프로그램에 첫발을 디뎠던 생각이 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은 그 첫날의 폭설처럼 참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29살의 나이에 다시 학생신분이 되어 생전 안 해본 법학을 공부해 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오리털 점퍼를 입고 학교에 가서 두껍고도 무거운 지원립 교수님의 민법강의책을 들고 법학관을 오르락 내리락하곤 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2013년 가을,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삼 놀랍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른 지 벌써 8개월이나 지났다니요. 심지어 고시계로부터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를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영광스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쓴 수기가 지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로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II. 공부에 임하는 자세

1. 직장인처럼 공부하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저는 꾸준히 직장인 신분이었습니다. 제 법학전문대학원생활의 신조는 '직장인처럼 공부하자'였습니다. 제 몸에 배어 있는 직장인의 생활습관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출근하고 또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퇴근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마치 직장인이 회사에 다니듯이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잘 안되더라도 일단 학교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본전환은 직장인들처럼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잠시 수다를 떠는 정도로 했습니다. 보통 9시쯤 등교하고 10시경 하교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는 밤을 새우거나 새벽까지 공부하기도 했지만 보통 저 시간대를 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만나질씩 공부했습니다. 직장생활과 다른 점이라면 급어를 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과 복장이 편하다는 점 정도였습니다.

2. 몰입의 힘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면 기대 이상의 잠재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몰입은 단순한 집중력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공부가 일상의 중심이 되게 하고 다른 잡다한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앞으로 이사를 올 때부터 신발은 꼭 필요한 것 두, 세 켤레만 챙기고 옷도 최소한으로 꾸리는 등 짐을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기존 친구들과 연락을 끊지는 않았지만, 약속은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 뭐든 공부 이외의 것은 신경이 쓰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공부에만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권을 충분히 누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III. 1학년 - 기초 쌓기

로스쿨 생활을 통틀어 가장 공부가 힘들었던 시기는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둔 3학년 2학기가 아니라 입학 직후인 1학년 1학기였습니다. 마치 새로 배우기 시작한 외국어처럼 법학의 표현방식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1달 만에 민법총론을 끝내

버리는 진도는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저 공부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버터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민법을 공부하는데 공부시간의 7할 이상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민법 교수님이 워낙 예습할 양을 많이 주셨던 게 주요 원인이었는데, 결국 이때 했던 민법 공부가 제 법학 공부 전반에 있어서 밑거름되어주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왜 그럴까를 고민하고 완전히 이해해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처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공부할 수 날은 다시 오지 않았고, 이때 이해 못 하고 슬쩍 넘어간 부분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날은 로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1학년의 공부는 꼼꼼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수강신청을 잘하지 못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공부를 잔뜩 시키시는 교수님들 강의를 주로 듣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예습하기 참 어려웠지만 결국 이때 고생한 만큼 2, 3학년 생활이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듣기 편한 과목 위주로 수강신청을 하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시키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해봅시다.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변호사시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 쌓아둔 내공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IV. 2학년 - 다양한 과목 접하기

숨 가쁜 로스쿨 과정에서 그나마 가장 여유 있는 시기는 2학년입니다. 후사법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 공부해야 하는 절대적인 양은 1학년 때보다 많지만, 공부에 요령이 어느 정도 붙어 기본서가 좀 더 수월하게 넘겨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변호사시험 걱정을 놓아두고 특성화 분야를 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평소 공부해 보고 싶었던 세법 관련 과목과 지방자치법 등을 수강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미리 변호사시험을 준비해두고 싶다면 변호사시험 관련 과목들을 다양하게 수강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법은 분량이 워낙 방대하니 2학년 때 회사법만 수강할 것이 아니라 상법총론, 어음·수표법, 보험법 등도 수강해 두면 3학년에 가서 수험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 때 회사법과 어음·수표법을 수강하고 상법총론과 보험법은 3학년이 된 후에 동영상 강의와 책으로 공부하였는데 미리 강의를 들어둘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족·상속법도 2학년 때 미리 수강해두면 3학년에 가서 수험 부담이 많이 경감되는 것 같습니다.

2학년 때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다. 1학년 때 야 긴장감으로 버티질지 몰라도 2학년 때부터는 관리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1학년 때 너무 고생해서인지 저는 2학년에 들어서더니 기운도 없고 자주 아팠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일주일에 2~3번 수영하러 다녔고, 요가도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운동은 나랑 안 맞아 하는 한심한 생각도 들곤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3년을 버티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V. 3학년 - 본격적인 수험생활

1. 방대한 양

막상 3학년이 되고 변호사시험까지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며 그동안 얼마만큼의 공부를 해야 하는지 셈을 해보니, 대략 한 300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었고, 그 시간 동안 8과목 중 사례형만 출제되는 선택과목을 제외한 7과목, 즉,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에 대해 각 세 가지 유형, 즉,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삼법과 후사법을 일주일에 걸쳐 객관식과 사례형, 기록형의 모든 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서 수험생으로는 정말 부담이 큼니다.

저는 일단 공부의 초점을 사례형에 두었습니다. 기록형은 사례형 연습을 잘 해두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기록 보는 연습은 어차피 학교 수업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형은 불안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3순환

학교에서는 순환 진도표를 공지해서 학생들에게 대략적인 공부 일정표를 제시해줬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순환,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순환, 마지막 12월 한 달간 3순환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맨 처음 넘어야 하는 산은 1순환, 즉 7법의 기본서를 쭉 정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단한 일이지만 이 산만 넘으면 변호사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한 번씩은 다 보는 게 됩니

다. 1순환 과정에서 수차례의 ‘벤붕’을 겪었습니다. 특히 1, 2학년 때 학교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진도에 맞춰 이를 읽어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진도에 따라 각자 기본서를 공부하되 아침에 모여 한, 두 시간씩 해당 범위의 사시, 변시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었고, 주말에는 사례형을 풀었습니다. 기본강의 헌법(정회철 저), 형법요론(신호진 저), 민법 교안(노재호 저) 순으로 기본삼법을 마쳤고,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상법강의(송옥렬 저), 형사소송법(이재상 저), 민사소송법(김홍엽 저) 순으로 후사법을 보았습니다. 후사법 선택형은 기존 사시에는 없던 유형이어서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쉬운 대로 CPA 기출문제 같은 것을 구해다가 풀기도 했는데, 변호사시험 대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2년 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가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1순환을 하면서 객관식 문제집을 푼 이유는 기본서를 꼼꼼히 읽기 위함이었지,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해야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에 선택형과 사례형을 모두 해낸다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소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진도에 맞춰서 계속 따라가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순환이 시작된 후에는 스터디원들과 사례형 문제집을 지정해서 풀었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섞여 있는 통합형으로 출제되고 문제 수도 많아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2학기가 되면서 마음이 조금해지다 보니 스터디는 그만하고 혼자 풀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자꾸 늘어지기만 하고 도저히 시간 내에 풀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변호사시험 전날까지 계속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스터디 운영에 있어서 버려지는 시간이 없도록 스터디원이 다 오지 않았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같이 모범답안을 읽어보면서 30분 이내로 빠르게 토론을 했습니다. 민사법 종합연습(박승수 저), 형사법 통합연습(이완규 저)을 풀었습니다. 공법은 재판연구원 필기시험 준비 때문에 2순환을 생략했습니다.

3순환부터는 책을 읽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렇지만 시간도 매우 부족하므로 일단 가지고 있는 책과 자료들을 정리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읽어야 할 자료를 골라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 공법은 2순환을 생략해버린 바람에

부담이 있었는데 다행히 헌법 핵심정리(김유향 저)와 행정법 엑기스(정선균 저) 같은 좋은 요약서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민사법과 형사법은 사법연수원 교재와 민사·형사소송실무(법원실무) 강의 자료를 위주로 보았습니다.

2. 강의를 얼마나 들을 것인가

3학년이 되면서 수업을 몇 과목이나 들을까 고민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다가오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할 텐데 수업 부담이 크면 안 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는 1, 2학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수업을 선택하였고 3학년 2학기에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사례연습을 수강했습니다. 초반의 걱정과는 달리 학교 수업과 변호사시험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시험 준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준비가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3학년 2학기가 되면 학점은 더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학교 시험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거나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다가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수록 혼자 다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외부의 자극을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도 열심히 듣고 스터디도 꾸준히 하면서 여럿이 함께 공부하는 게 불안감도 덜 생기고 중요한 쟁점을 놓칠 위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해보겠다며 굴속으로 파고들기 보다는 교수님들과 동기들을 믿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스터디

저는 로스쿨 3년 내내 수많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1, 2학년 때에는 중간, 기말고사를 앞두고 친구들과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를 정리하거나 범위를 나누어 써머리를 만드는 등 며칠만 운영하는 단기 스터디도 많이 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는 이런 단기 스터디는 거의 하지 않았고 주로 순환프로그램 진도 스터디를 했습니다. 공부 성향이 맞는 친구 3~4명과 소규모로 운영했습니다. 매일 한, 두 시간씩 같이 문제를 풀고 토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은 서로 비슷비슷하고 친구들과 같이 고민하다 보면 결국 답이 나오게 되며 말로 표현하면서 공부한 것은 머리에 훨씬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4. 교재

보통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권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공부를 해 본 적도 없는 저로서는 솔직히 밀줄작업, 단권화 작업 등이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졌고,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법고시와 달리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한꺼번에 시험 보기 때문에 세세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속도감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3학년이 되어 1순환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기본서를 새로 구매해 보았고 점차 얇은 책으로 교재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개인마다 차이가 커서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5. 시험 당일

변호사시험을 치른 5일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생스러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험이 주는 긴장감도 엄청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시험 일정 때문에 매일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기록적인 추위가 이어졌고 시험장 환경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시험을 보려면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 두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 전에는 당일 시험이 끝나면 다음 날 시험 볼 과목을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시험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9시가 넘었고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쉬고 머리가 맑은 아침에 시험장에 조금 일찍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VI. 나가며

처음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땐 양에 압도당하고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정작 1순환을 끝내고 나니 중요한 쟁점은 정해져 있고 외어야만 하는 것도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잘 찾아보면 교재도 좋은 것이 참 많고, 동영상 강의도 많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쭙볼 교수님들과 똑똑한 동료가 있고, 학교 도서관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만 공부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건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